

장수군 침령산성, '신라고분'으로 밝혀져

춘송리고분군 시굴조사서 다량의 신라고분 확인... 도굴 피해 입지 않은 4호분 향후 실체 기대

전라북도 역사문화권 조사정비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장수 춘송리고분군 시굴조사에서 다량의 신라고분이 확인됐다.

특히 4호분은 도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발굴조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춘송리고분군 시굴조사는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의 허가를 받아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가천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가 협력해 이뤄졌다.

장수 춘송리 고분군은 '침령산성(국가사적)'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동일 산줄기에 위치해 고분군과 산성이 한 세트를 이룬다.

침령산성은 삼국부터 후삼국까지 운영된 장수군의 대표 산성으로, 학술연구 성과 등을 통해 2023년 8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중요유적이다.

장수 침령산성과 인접해 자리하고 있는 춘송리 고분군에는 대규모의 고분이 밀집돼 있으며, 산줄기 정상부에 대형분, 주변 사면부에 중·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10기에 대해 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석곽묘(돌덧널무덤, 시신이 묻히는 공간) 9기가 확인됐다. 석곽묘는 정측 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고, 덧돌이 없는 깎돌(削埋)로 축조됐다. 이는 경주·울주·김천 등에서 조사된 신라



장수 침령산성 춘송리고분군

석곽묘의 속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그 중 4호분은 분묘의 지름이 15m 내외의 대형분이며, 석곽묘의 길이가 4m 이상이다.

또한 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세기 전반 무렵의 신라토기(무경 편)가 출토돼 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침령산성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핵심 자료가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과관호 기자

김순영·최명희 작가 작고문학인세미나

최명희문학관, 10일 작가 작품 나눠 읽고 소감 공유

최명희문학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김순영 수필가의 작품을 살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고문학인세미나는 지난해부터 한 명의 문학인을 선정해 후배 문학인들이 작가의 작품을 나눠 읽고 그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목한 김순영 수필가는 정을 출신으로 전주에서 오래 생활하며 글을 썼다. 196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와 삼남일보 신춘문예 등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1960·70년대 신석정·김해강·신근 등과 문단활동을 했다. 특히 전북문인협회·전북여류문학회 창립에 이바지하는 등 폭넓은 문학 활동으로 전라북도 문학사의 지평을 넓혔다.



김순영 수필가



최명희 소설가

세미나에서는 김순영 수필가의 절친한 동료이자 후배 문학인인 김용옥 시인이 '내가 사랑한 수필가 김순영'을 주제로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최기우 극작가가 '수필가 김순영의 삶과 문학'을 말한다. 또한, 김근혜·김영주·이경옥 동화작가, 이진숙 수필가, 최아연·황지호 소설가가 작가의 수필집을 읽고 쓴 서평을 발표하며 소감을 나눈다.

이와 함께 최명희 연구도 수필에 집중했다. 문학박사 김미영 씨와 최기우 극작가가 수필을 통해 고향의 혼혈했던 인성과 풍경, 일상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전한 최명희의 수필 세계를 들려준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문학평론가 문신(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씨가 맡는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오민아 강산제 심청가 완창무대 9일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9일 판소리마당 '소리 판' 무대를 통해 오민아의 강산제 심청가 완창무대를 예음헌에서 5시간 동안 선보인다.

국악원의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이다.

주인공 오민아는 전남 보성에서 출생해 열한 살 때부터 고성우향 명창의 소리를 맡아 전수한 소리꾼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자 제19회 명창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명창부에서 대령상을 받은 명창이며,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와 동편제의 장점을 모두 지닌 잘 짜인 음악적 구성과 절제된 소리가 특징이다.

고수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박근영 명고와 도립국악원 이상호 명고가 함께하며, 공연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답원과 대화), 누리집(<https://namwon.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15일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 행복을 전하는 음악 '2023년 송년 콘서트'를 펼친다.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2023년 송년 콘서트가 드림 뮤지컬팀의 오픈링 공연 'love is an open door', 'Mamma mia medley' 등 신명나는 무대와 신해철이 인정한 디바 은가은의 '바람의 노래', '사랑아니' 등, 그리고 국악트롯 요정인 김태연의 '야놀자', '하트뿔' 등을 준비하였으며, 미스트롯2의 슈퍼맘 정미애의 '돌고돌아가

는길', '님의등불' 등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였다.

이번 공연은 열심히 달려온 올 한 해를 위로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열의를 담은 공연으로 김제시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는 음악을 통해 즐겁고 행복을 전하는 공연 무대를 선사한다.

관련된 예매는 12월 5일 오전 8시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김제시민(신분증지참)에 한해서만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 박물관, 수묵캘리그래피 작품전 14일까지 개최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11월 30일 수묵캘리그래피 작품전 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전은 전주대 평생교육원과 공동 기획으로 대학 내 문화기반시설 활성화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전시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작품은 총 25점으로 수묵캘리그래피와 강사를 비롯해 9명의 회원이 캘리그래피와 수묵을 접목해 다양한 구도와 감성으로 그려냈다.

매당 이명순 강사는 "이번 작품전에 출품한 작품은 '먹의 향기'라는 자연을 소재로 전통 문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전통의 맛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며 "9명의 신진 작가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함축된 내용을 담아낸 작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전은 VR과 함께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예연구실(063-220-215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문체부 장관상 수상

예술경영대상 공모 '대상' 선정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 예술경영대상'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영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를 비롯해 정부 문화예술기관장과 단체, 민간예술기업, 예술경영인 등이 참석해 대상작에 대한 사례발표와 시상식을 함께했다.

예술경영대상은 국내 문화예술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선진사례로 상호교류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상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주문화재단은 기업과 시민, 예술인을 매개하는 예술후원 플

랫폼 '이팝프렌즈'를 운영해 지역문제진혼은 물론 시민문화권 확대와 후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기초재단 최초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을 받는데 이어 올해 예술경영대상까지 수상하며 전국문화예술 후원 운영의 선진적 사례로 우뚝 섰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난 3년간 기업과 시민의 예술후원이 있었기에 예술경영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이팝프렌즈 운영위원장님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선택 후원해 준 향토기업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후원으로 모두가 예술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틀 남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